

“연료는 덜 쓰고 오염은 줄인다” 국내 첫 전기복합추진 어선 건조

- 4월 2일 포항에서 진수식 개최, 어업인 유가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내 최초로 디젤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전기복합추진’ 방식의 시범 어선 건조를 마치고, 4월 2일(목) 포항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복합추진 방식은 기존 디젤엔진에 배터리 기반 전기모터를 더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엔진과 모터를 함께 또는 나눠 사용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낮출 수 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건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은 길이 20.95m, 총톤수 9.77톤 규모로 최대 8명의 선원이 탑승할 수 있다. 항구에서 어장까지 이동할 때는 디젤엔진을 활용하고, 조업 중에는 전기모터를 활용해 운항함으로써 연료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 주기관(디젤) 630마력, 전기모터 105kW, 배터리 용량 160kW

해양수산부는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부터 중소조선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어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신조된 전기복합추진 어선으로 실제 해상에서 시험운항을 실시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료 절감 효과 및 오염물질 감소 수준, 조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분야에 친환경 추진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업인 유가 부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친환경 선박의 실용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51-773-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현석 (051-773-5551)

참고

제물포호 주요제원 및 사진자료

□ 시제어선 주요제원

총톤수	전장(LOA)	형폭(B)	형깊이(D)	주기관	전기모터	배터리
9.77톤	20.95m	4.5m	1.0m	630마력 (디젤엔진)	105kW	160kWh

□ 사진자료

